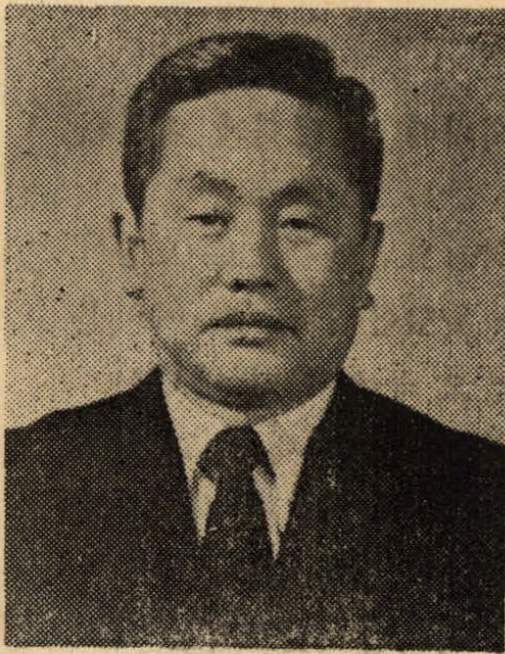




이 동욱 교장 선생님의 편지

Mr. Dong Wook Lee
2316 E. 5th St.
c/o Mrs. Athas
Tulsa, Okla. 74104
U. S. A.

보고싶은 인성 가족에게

여러분과 헤어져 이곳으로 떠나와서 맞이하는
두번째 겨울입니다.

작년 보다도 이번 연말에는 더욱 감회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7년만에 다시 와보는 미국도 여러 면에서 많
이 달라져 있었고, 또 세계 여러곳의 모습도 엄
청난 변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 지금 실로 세기적이랄 수 있는 변혁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0월 유신과
남북의 대화가 주님의 섭리 속에서 하루속히 좋
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변화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
다. 변화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것이
겠지만, 오늘날처럼 급격한 변화는 일찌기 없었
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 “변치 않는 그 무엇”을

간직한 채, 이 격변의 세대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교도 안팎으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들의 대견한 성장의 모습도 눈에 어려 옵니다.

몸은 비록 지구의 반둘레를 사이에 두고 있으
나, 지금 나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맑은 눈동자가 빛나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절과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
분과 인성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돌아가 여러
분과 만나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
십시오.

특별히 1월 12일에 교문을 나서는 중고등학교
650여 졸업생에게 축하의 말씀을 보냅니다. 변
함없는 인성인의 정신으로 살기를—.

1972년 12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이 동 육